

나주배 가공 신제품 개발... 소비자 유혹 나섰다

市 천연색소센터, 과일칩 형태의 '비트품은 나주배' 출시
'지암지암까까'는 상표 등록... 새로운 제품 시리즈 추진도

나주시가 동결·건조법을 활용한 나주 배 가공 신제품을 출시해 소비 촉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주시 천연색소산업지원센터(이하 색소센터)는 나주 배 생산량 증가와 소비 부진으로 인해 재고가 누적된 저장 배를 활용한 동결건조 제품인 '비트 품은 나주 배'를 개발·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색소센터에 따르면 현재 배 가공 제품은 주로 주스 39%와 네타 27%, 기타 가공 제품 2% 등으로 한정된 형태다. 이에 새로운 소비자 욕구에 맞춘 소비시장 창출을 위해서는 배 가공 상품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시에 따르면 나주 배 가공 때 문제점은 껍질을 벗기거나 과실을 절단하는 과정에서 조식이 손상돼 가공·저장 중 껍질이 흑색으로 변하거나 과실이 갈색화되는 등 문제가 발생해 유통·판매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개발된 '비트 품은 나주

배'는 그간의 문제점을 말끔히 해소해 나주 배 고유의 맛과 영양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과일 칩 형태로 동결건조된 제품이다.

'비트 품은 나주 배'는 나주 배에 베타인과 안토시아닌 성분에 풍부한 비트 천연색소를 함유시켜 항산화, 혈류량 증가, 다이어트 등에 효과가 좋다.

색소센터는 '지암지암까까'를 자체 브랜드로 상표등록을 마쳤으며, '비트 품은 나주 배'에 이어 '노란 울금 입은 나주 배', '클로로필 나주 배' 등 나주 배를 활용한 새로운 신제품들을 시리즈로 제작할 계획이다.

재단 이사장인 강인규 나주시장은 "지암지암까까라는 브랜드명은 단동심훈 교육동작에 하나인 지암지암에서 따온 것으로 손을 반복해서 쥐락펴락하는 아동의 표현과 과자를 의미하는 까까를 합친 우리말로 건강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천연색소산업지원센터 직원들이 나주배에 베타인과 안토시아닌 천연색소 성분이 풍부한 비트를 함유시킨 동결건조 신제품 '비트 품은 나주배 칩'을 포장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마음을 담았다"며 "나주배의 맛과 영양분을 원재료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동결건조공법 가공기술을 활용해 앞으로 소비자의 욕구에 맞는 신제품 개발로 나주배 소비촉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색소센터는 지난 2일 한국식품안전

관리인증원으로부터 식품의 안전성, 건조 및 품질 확보를 위한 계획적 관리 시스템인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해석) 인증을 획득했다.

/나주=김민수기자 kms@kwangju.co.kr

쪽 염색 접목 프랑스 자수와 펠트의 만남

스마트 미디어스테이션 전시회

나주시는 빛가람 호수공원에 위치한 스마트미디어스테이션에서 프랑스 자수와 펠트 작품이 어울어지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지난해 10월 스마트미디어스테이션 개관을 기념해 열린 천연염색 작품전시회에 이은 두 번째 전시회로 '나누고 싶은 따뜻한 이야기'라는 테마로 박연신 작가의 프랑스 자수와 김연희 작가의 펠트작품 30여점이 전시됐다.

지난 7일부터 열린 전시회는 3월 30일까지 프랑스 자수기법을 국내에서 처음 소개한 것으로 알려진 박연신 작가가 유학 시절 배운 프랑스 전통 자수에 나주 전통 쪽 염색을 접목한 작품이 선보인다.

김연희 작가는 이번 전시회에서 실로 제작한 섬유가 아닌 양모를 가진 압축하여 피복 형태로 만든 펠트를 출품, 새해 시작의 의미를 다양한 색과 모양으로 표현했다.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스마트미디어스테이션은 LED유리로된 외벽에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구현하는 최신 기술의 컨테이너 형태 시설로 빛가람 호수공원에 문화랜드마크로 손꼽힌다. 나주시와 LH,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017년 체결한 콘텐츠기반 지역개발 활성화사업의 대표적인 결과물로서 총 사업비 6억 원을 들여 지난해 10월 30일 개관했다.

나주시 관광문화과 관계자는 "천연염색에 프랑스 자수와 펠트가 결합한 색다른 작품을 시민들이 보고 즐길 수 있도록 전



지난 7일부터 빛가람 스마트 미디어 스테이션에서 박연신·김연희 작가의 천연 쪽 염색을 접목한 펠트 작품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시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전문 예술인의 작품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예술작품을 전시하는 방안을 마련해 2층 기획 전시

실을 시민이 꾸며가는 열린 공간으로 활용해가겠다"고 밝혔다.

/김민수기자 kms@kwangju.co.kr

행복나주 이동봉사단, 장송마을서 올 첫 봉사활동

행복나주 이동봉사단이 지난 7일 반남면 장송마을에서 올 첫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216번째 봉사를 한 행복나주 이동봉사단은 이날 지역 자원봉사자 70여 명과 정승리 주민 100여 명이 함께 참여해 의료진찰과 가전제품 수리 등 25개 분야 125건

의 자원봉사 서비스를 실시했다.

지난 2008년 15개 분야 44명으로 구성돼 노안면 금안리 인천마을에서 첫 발걸음을 내딛은 행복나주 이동봉사단은 현재 25개분야 70명으로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행복나주 이동봉사단은 오지마을 주민들

의 고장난 생활기기를 수리해주는 등 일상생활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해주며 주민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에 앞장서고 있다.

행복나주 이동봉사단은 특히 봉사활동을 넘어 시립예술단 공연 등을 도입해 주민들에게 다채로운 여가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정현 장송마을 이장은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추운 날씨 속에 멀리까지 찾아

와 나눔을 전하는 봉사자들을 보며 새삼 지역의 따뜻한 정을 느꼈다"고 말했다.

행복나주 이동봉사단을 총괄하는 김권영 나주시 사회복지과장은 "천재지변이 없는 한 행복나주 이동봉사단은 아무리 매서운 한파가 있더라도 어디든지 찾아가서 따뜻한 사랑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김민수기자 kms@

이창동 복지팀 외국인 노동자 돕기 훈훈 의료비 애타는 스리랑카인 지원

나주시 이창동과 이창동 맞춤형복지팀이 불법 체류 신분인 외국인 노동자 돕기에 나서 지역을 훈훈하게 하고 있다.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스리랑카 출신 노동자의 소식을 접하고 도움을 손길을 모은 것이다.

최근 스리랑카인 A씨는 복통으로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급성췌장염 진단을 받았다. 다행히 응급조치 덕분에 몸은 회복됐지만 병원비를 감당할 수 있는 형편이 못했다. 신분도 불안정한 상황여서 도움을 요청할 만한 곳도 없었다.

A씨의 소식을 들은 이창동 맞춤형

복지팀은 도움을 줄 만한 사람들을 물색했다. 그러다 이창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영수씨가 지인들과 함께 외국인노동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영산포에 위치한 제일병원에서 업무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씨는 "매일 환자를 상대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A씨의 사정을 모른척 할 수 없다"고 전했다.

강동철 이창동장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 홍보 및 찾아가는 복지상담의 중요성과 책임감이 크다"며 "맞춤형 복지팀과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주=김민수기자 kms@



이창동 맞춤형복지팀 직원이 스리랑카 출신 외국인 노동자 A(왼쪽)씨의 주거지를 찾아 위로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확대 추진

오늘부터 선착순 신청 접수

나주시는 노후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지난해 첫 추진했던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올해 확대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중 건설기계로 나주시에 신청일 기준 2년 이상 연속 등록 및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 된 차량과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 및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자동차이다.

또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

용 3중 건설기계와 보조금 지급대상 확대로 신청일 기준 지방세(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포함) 체납이 없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중 건설기계이며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차량의 연식과 차종 등에 따라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3.5t 미만은 최대 165만원, 3.5t이상 6000cc초과 차량은 최대 77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접수는 나주시청 환경관리과에 오는 2월 22일부터 선착순 접수하며, 사업비(242백만 원)소진 때 종료될 방침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나주시청 홈페이지(www.naju.go.kr) 또는 나주시 민원콜센터 (1577-7800)로 하면 된다.

/나주=김민수기자 kms@

구례, 그랜드 호텔



-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11-2
- 지리산은천 정문 바로 앞, 최고위치
- 대지489평, 건물 768평, 대형객실 40개
- 지하1 지상4층, 엘리베이터 유
- 식당(300명 수용), 커피숍, 단란주점/세미나실
- 케이블카 설치 최우선 지역
- 연 매출 8~10억/순수익 4억~5억 가능
- 감정가 / 시세 - 25억
- 매매 - 20억

나주, 2층주택



- 나주시 반남면 덕산리 383
- 대지106평, 건물42평
- 1/2층 - 각 방2 화1 거실
- 집마당까지 차량 진입
- 광주에서 40분
- 2월 중순 입주가능
- 시세 - 1억
- 매매 - 7200만원

주인직매 H.010-3605-5000